

기고 서운정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깨끗한 정치후원금, 희망 대한민국

내년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5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입후보예정자들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각종 모임 등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예비 후보간 얼굴 알리기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 왔다. 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KB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별다른 용도를 알지 못해

무심코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총 100억여원의 기탁금을 기탁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금년 1월에 주요 정당에 배분 지급하였다고 한다. 이는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숨은 노력이 결합되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개인이 선관

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고 조성방법을 다변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선진국에 쉽게 진입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탄탄한 경제를 갖고 있어도 부패정치 문화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국가의 예도 있고 깨끗한 정치문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부흥을 이룩한 국가의 예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국민 한사람이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치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희망찬 정치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社說

국가성평등지수 바뀌야 한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2년간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것이라니 기대가 크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국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 성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9년 개발됐다.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남녀 격차를 측정해 지수로 나타낸다. 2013년 68.9점이었던 성평등지수는 매년 소폭 상승해 2017년 71.5점을 보였다. 개편 방안을 연구하는 김경희 중앙대 교수의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등으로 구성된 영역은 동등한 권한·자원의 동등한 접근·평등한 관계로 전환한다. 하위 지표인 분야도 가족, 문화·정보, 복지, 보건 등에서 돌봄, 평등의식, 건강, 소득 등으로 바뀐다. 이같이 새롭게 개편한 지표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종합지수는 62.2점, 전년보다

1.5점 상승했다. 개편된 지수 값을 기존 지수 값과 매년 비교한 결과 평균 10점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와 별도로 '여성폭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관련 지수가 인구당 성범죄 피해율, 발달 안전의식 등의 지표에 근거하다 보니 여성폭력 실태와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폭력지수는 성폭력실태(만연성, 심각성, 은폐성), 제도의 성인지성, 사회환경 영역으로 나눠 측정하도록 했다. 이 지수에 따른 측정 결과를 보면 평생 여성의 46.2%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은 100명 중 7명이었다. 이번 개편안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졸음운전 휴식필수 배려감속 생활화해야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3년간(2015~17년)의 졸음운전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명)의 2배였다. 운전자가 졸고 있던 탓에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사고 대응이 전혀 없이 그대로 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에 졸음운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스트레칭을 하라. 앉은 자세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졸음을 줄일 수 있다. 팔을 쭉 뻗으며 어깨를 풀어주거나 의자 등받이에 팔꿈치를 지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는 동작, 목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 도움이 된다. 둘째, 자동차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라. 사람이 졸음이 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창문을 닫은 채 장

시간 운전을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 졸음을 유발하므로 창문을 내려 환기 시켜 주고, 창문은 운전석 쪽 창문과 대각선 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효과적이다. 셋째, 너무 과식 하지 말라. 인체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에는 체내에 산소요구량이 많아지게 된다. 산소요구량이 많아지면 허품을 하게 이란 말도 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심터나 안전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인소방서 지휘팀장 백종희

화재시 질식방지를 위한 대피요령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몸에 닿기도 전에 가스와 연기에 의해 질식사 하는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로 유독가스가 퍼질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방독면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방독면을 휴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위험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위험지역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람부는 방향과 90도 각도 꺾어져 피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하철 등 실내 구역에 서라면 피신 공간이 한정되므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근처의 비상구로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계단으로 이동시에는 연기나 불길 이 확산됐는지를 확인한 후 조

심해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화재발생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갇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재시 승강기 이용은 금물이다. 유독가스 흡입을 막기 위해서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물에 적서 코와 입을 가린 뒤 호흡해야 하며 피부노출도 최대한 막는 것이 좋다. 손수건이나 휴지를 16겹 정도로 접어 입은 담은 채 코에 대고 코호흡만 하면 거의 방독면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일 유독가스를 흡입했을 경우에는 우선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로 환기를 운반한 뒤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수동으로 문을 여는 방법이나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사 류진상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호남신문, 대표전화, 광고국, 팩스, 인터넷 호남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